

연구보고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책임연구원 이창호

공동연구원 김기현

RESEARCH REPORT 2017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 분석

- ▶ 책임연구원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의 확산은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양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많은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하느라 자녀와 대화를 등한시하거나 자녀 또한 스마트폰에 열중하느라 부모와 상호작용을 원활히 못하고 있음. 특히 어린 자녀들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과 이에 따른 부작용은 비단 우리사회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이들 국가들은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나 사이버 폭력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공통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세 나라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부모와 자녀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의 초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산으로 부모와 자녀가 이러한 디지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얼마나 상호 소통하느냐를 분석하는 데 있음. 즉 가정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이러한 디지털미디어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고자 함. 아울러, 가정내에서 자녀의 미디어이용과 몰입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도 분석함. 특히 가정 내 컴퓨터나 핸드폰에 대한 사용규칙을 정해 놓는 것이 자녀의 인터넷이용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도 검증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가 청소년에게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 정리함.
- 전문가자문회의 : 인터넷시대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한 차례 실시함.
- 설문조사분석 : 전국의 초(5, 6학년), 중학생(1, 2학년) 총 1,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3. 주요 연구결과

- 가정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사용시간, 사용내용, 사용방법과 매너, 사용요금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5.1%, 47.2%, 58.7%, 55.0%였음. 즉 네 가지 규칙 중 사용방법과 매너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대체로,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더 많이 규칙을 정해 놓고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음. 사용규칙을 정해놓고 준수할 경우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 지 질문한 결과 10명 중 3명 정도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는다고 답하였음. 즉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상호 논의하에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SNS를 통해 부모와 대화하는 경우보다 면대면 대화를 하는 경향이 강했음. 또한 SNS 이용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응답자 10명 중 8명 가량은 부모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정보기기를 매개로 대화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응답자의 21.7%는 부모와 새로운 어플이나 SNS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답했음.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디지털기기를 매개로 한 대화보다는 부모와의 직접적인 면대면 대화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응답자의 18.3%는 가족들과 식사하거나 단란한 시간에 자주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21.1%는 인터넷에 빠져서 잠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호소했음. 특히 초등학생(13.0%)보다 중학생(28.7%)들이 인터넷으로 인한 수면부족을 많이 호소하였음. 게임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돈을 많이 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1.5%였음. 특히 여학생(4.0%)보다 남학생(17.8%)의 경우 디지털게임사용으로 돈을 많이 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음.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게임을 즐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주말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는 학교급과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쳤음. 즉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주말에 인터넷을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주말에 인터넷을 이용할 경향이 높았음. 또한 첫 인터넷사용연령대가 빠를수록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고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에 속할수록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음. 하지만, 부모애착은 주말인터넷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부모와의 상호작용 가운데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대화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신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말 인터넷이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말 인터넷이용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음.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관한 규칙준수의 경우 사용시간과 사용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고 이를 실천하는 경우 규칙이 없는 집단에 비해 주말인터넷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결과는 사용시간과 사용내용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하는 경우가 규칙이 아예 없는 경우보다 주말 인터넷이용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음.

- 스마트폰 과의존척도점수의 평균값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투입된 변수들은 전체변량의 2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결과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는 스마트폰 과의존예측요인으로 경제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즉 자신이 못산다고 생각할수록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임. 비록 경제상황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생각을 물었지만 경제적 수준과 스마트폰중독 간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음. 중학생집단이 초등학생집단에 비해 미약하나마 스마트폰과의존에 빠질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음. 첫 인터넷사용연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주말인터넷사용시간은 스마트폰과의 존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애착은 스마트폰과의존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즉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와의 면대면대화 또한 스마트폰과의존위험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타인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할 경우 스마트폰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디지털기기에 관한 규칙의 경우 사용시간이나 사용방법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규칙을 아예 정해놓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스마트폰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규칙을 준수해놓고 이를 실천할 경우 스마트폰과의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정도 등 관련 요인들이 부모와의 면대면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음. 그 결과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환경에 놓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면대면 대화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모와 SNS를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면대면대화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음. 특히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면대면 대화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음.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부모와의 면대면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음. 즉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대화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음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중독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4. 정책제언

- 디지털기기의 확산으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매개로 한 가족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과다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음. 하지만, 자녀들이 무조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빼앗는 등의 행위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는 곧 부모와 자녀의 신뢰나 애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그나마 좋은 방법은 자녀의 스마트폰이용시간에 관한 규칙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논의하여 만들어 실천하는 것임.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미디어이용시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인터넷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됐음. 따라서, 가령 하루에 정해진 공부를 다 했으면 30분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세워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음. 물론, 규칙을 준수했을 경우 그에 따른 긍정적 보상은 부모가 해 줄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심어줄 수 있음.
- 부모가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집착한 나머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음. 더구나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자녀의 미디어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즉 아이들은 부모의 미디어이용행태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함. 특히 부모가 디지털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자녀와의 면대면 대화도 감소할 수 있음.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정도는 스마트폰과의존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었음. 따라서, 부모들은 가급적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굳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으면 아이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나 아이들이 잠든 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부모의 중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부모가 미디어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을 자녀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때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줄 때 핸드폰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잘못사용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지를 자녀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 휴대전화를 사줄 때도 가급적이면 피쳐폰을 사 준 뒤 어느 정도 통제력이 형성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임. 따라서, 초등학교 때는 문자와 통화기능 중심의 피쳐폰을 사주는 것이 자녀의 미디어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중독이나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애착이 중독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음. 즉 부모와의 애착이 결여된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디지털기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임. 따라서, 스마트폰중독 등 역기능을 예방하려면 자녀와의 친밀감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또한 부모와 자녀의 면대면 대화도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1) 인터넷 확산에 따른 부모와 자녀 관계 변화 실태 분석	5
2) 부모와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5
3. 연구방법	5
1) 문헌연구	5
2) 자문회의	5
3) 설문조사	6
II.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	7
1. 부모와의 소통방식 변화	9
2. 가정내 디지털기기사용을 둘러싼 갈등과 부모의 중재	11
3. 부모애착과 인터넷역기능	16
4. 가족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18
III.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 설문조사결과	19
1. 조사개요	21
2. 조사결과	22
1) 정보기기 소유 실태	22
2)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	24
3) 첫 인터넷 사용 연령	24
4) 주중 인터넷 사용 시간	25

5) 주말 인터넷 사용 시간	25
6) 부모의 자녀 인터넷사용용도 인지 여부	26
7) 인터넷사용중의 태도등에 관한 부모의 주의	26
8) 휴대전화/컴퓨터에 관한 사용규칙	27
9) SNS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	28
10) SNS 게시물 공유	29
11) 디지털기기가 미친 영향	30
12) 가족과 함께 하는 행동	31
13) 부모와의 소통 환경	33
14) 부모와의 대화 내용	34
15) 부모와의 갈등	35
16) 스마트폰과의존	38
17) 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40
18) 스마트폰과의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44
19) 부모와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

IV. 결론 및 정책제언 49

1. 결론	51
2. 정책제언	52
1) 미디어이용시간 등에 관한 규칙 준수 및 실천	53
2) 부모의 지나친 스마트폰 이용 자제	53
3) 가정 내에서 부모의 적극적 중재 역할 필요	54
4) 부모와 자녀의 애착 및 친밀감 형성	54
5) 부모대상의 미디어교육 강화	54
6) 올바른 미디어이용을 위한 부모용 가이드북 발간	55

7) 청소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55
8)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강화를 통한 건전한 매체 이용 활성화	56
9) 학교 자율참여형 미디어교육 강화	56
10)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시 치유서비스 제공	56
11)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 및 학습 강화	57
 참고문헌	 59
 부록	 65
1.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설문지	67

표 목 차

〈표 II-1〉 유아동자녀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1+2순위)	14
〈표 II-2〉 중학생의 스마트폰 이용태도	15
〈표 III-1〉 조사영역 및 문항	22
〈표 III-2〉 집단별 정보기기 소유 실태	23
〈표 III-3〉 인터넷사용비율	24
〈표 III-4〉 첫 인터넷 사용 연령	24
〈표 III-5〉 주중 인터넷사용시간	25
〈표 III-6〉 주말 인터넷사용시간	26
〈표 III-7〉 자녀 인터넷사용용도 인지여부	26
〈표 III-8〉 인터넷사용에 관한 부모의 주의	27
〈표 III-9〉 휴대전화/컴퓨터 사용규칙	28
〈표 III-10〉 SNS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	29
〈표 III-11〉 SNS 게시물 공유	29
〈표 III-12〉 디지털기기 영향	30
〈표 III-13〉 가족과의 행동	32
〈표 III-14〉 부모와의 소통	34
〈표 III-15〉 부모와의 대화내용	35
〈표 III-16〉 부모와의 갈등	36
〈표 III-17〉 스마트폰 과의존 집단 분류	38
〈표 III-18〉 규칙결정방법에 따른 스마트폰과의존 집단 분류	39
〈표 III-19〉 스마트폰과의존 척도	40
〈표 III-20〉 주중 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41
〈표 III-21〉 주말 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43
〈표 III-22〉 스마트폰과의존위험집단 예측 요인	45
〈표 III-23〉 스마트폰과의존 예측 요인	46
〈표 III-24〉 부모와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8

그림 목차

【그림 II-1】 부모의 중재방식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13
【그림 IV-1】 미디어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	57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의 확산은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양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하느라 자녀와 대화를 등한시하거나 자녀 또한 스마트폰에 열중하느라 부모와 상호작용을 원활히 못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 보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실,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자신의 분신이자 생활이다. 이미 국내 중, 고등학생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리포트(2016)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의 휴대폰 보유율은 2016년 77%였고 이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68.2%에 달했다. 중학생의 스마트폰소지율은 90.0%,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9.5%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들 가령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연락하거나 소통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공부에 방해를 받거나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만명가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절반(54.1%)이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김영지 외, 2016). 수면에 방해되는 요인으로는 미디어관련변인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즉 51.9%의 응답자들이 수면이 부족한 요인(1+2+3순위)으로 채팅, 문자메시지를 폄앓고 드라마/영화시청, 음악청취가 50.8%, 가정학습 50.7%, 학원과외 49.5%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게임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채팅/문자메시지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을 하거나 채팅을 하느라 잠을 설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외국의 연구결과도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수면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청소년들의 우울성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mola et al., 2015). 즉 잠자기 전에 스마트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잠을 설치기 쉽고 이는 곧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과의 존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32.6%가 인터넷, 스마트폰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했고 안구건조증/시력약화가 30.1%로 그 뒤를 이었으며 29.4%는 목, 손목,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 이 기관이 2016년 인터넷과의존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폰과의 존위험군은 유아동(만3세~9세)이 17.9%, 청소년(만10세~19세) 30.6%, 성인(만20세~59세) 16.1%, 60대(만60세~69세) 11.7%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과의존이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사용으로 부모와 교사와 갈등을 겪는 사례도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청소년의 46.3%가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선생님과 갈등을 겪는 응답자의 비율은 16.6%였다(이창호, 김경희, 2013). 이 조사에서는 자는척하면서 부모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6%에 달했다.

이러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과 이에 따른 부작용은 비단 우리사회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나 사이버 폭력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공통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세 나라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부모와 자녀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의 청소년 문제 중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시대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각 국가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2018년에 미국을 포함한 4개 국가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결과만 분석할 예정이다¹⁾.

본 연구의 초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산으로 부모와 자녀가 이러한 디지털네트워크를

1) 이 연구는 본원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력기구(WARDY)에 소속된 중국청년정치학원 중국청소년연구센터(CYCRC)에서 한중일 공동연구사업으로 제안한 것임. 이에 따라 3개국 담당자(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은 일본 청소년교육진흥기구)가 일본에서 개최한 공동 심포지움 자리('16. 6. 11)에 모여 2017년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함. 이후 2017년 6월 11일 중국에서 3개국 공동연구자들이 모여 중국측에서 만든 초안설문지를 검토한 후 최종설문지를 만들었음.

활용하여 얼마나 상호 소통하느냐를 분석하는 데 있다. 즉 가정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이러한 디지털미디어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정내에서 자녀의 미디어이용과 몰입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도 분석할 것이다. 특히 가정 내 컴퓨터나 핸드폰에 대한 사용규칙을 정해 놓는 것이 자녀의 인터넷이용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인터넷 확산에 따른 부모와 자녀 관계 변화 실태 분석

인터넷 확산에 따른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 부모와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한국의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확산에 따른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가 청소년에게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 정리하였다.

2) 자문회의

인터넷시대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책방안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한 차례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는 자녀를 둔 미디어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3) 설문조사

인터넷 사회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공통설문지를 개발한 후 국가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이다. 우리사회의 경우 전국의 초, 중학생 1,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II 장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

1. 부모와의 소통방식 변화
2. 가정내 디지털기기사용을 둘러싼
갈등과 부모의 중재
3. 부모애착과 인터넷역기능
4. 가족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제 II 장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

1. 부모와의 소통방식 변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산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사용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부모와 대화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것과 달리 카카오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행위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가령, 청소년들이 멀리 캠프에 참여하거나 수학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카카오톡은 부모와 자유롭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이모티콘 등을 이용하여 면대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고 있었다(배진아, 조연하, 2010). 즉 자녀들은 면대면 상황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털어놓고 있어 디지털기기가 부모와 자녀관계를 친밀하고 돈독하게 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종길과 박수호(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구성원들과 블로그/커뮤니티/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6.8%에 머물렀지만 가족과 일촌이나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57.7%에 달했다. 즉 가족구성원들과 인터넷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디지털기기의 확산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 단절이나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 즉 부모가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열중하다보니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녀와의 대화나 소통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국내의 한 연구결과는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보다는 4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 스마트폰중독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카톡을 하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라 자녀와 면대면 대화를 소홀히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단절이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에 집착하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MBN, 2017. 5. 10). 또한 자녀의 디지털미디어기기에 대한 의존과 집착은 늘 부모와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배진아, 조연하, 2010). 부모들은 디지털미디어의 이용이 학업에 방해가 되며 두뇌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자녀가 디지털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면 이를 통제하려고 한다(배진아, 조연하, 2010).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예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빼앗아버리는 경우가 가끔 가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기기가 가정 내 부모와 자녀관계의 소통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체로, 몇몇 연구들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등장으로 부모와 자녀관계가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령, 김반야(2015)는 청소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면대면 소통과 휴대전화를 통한 소통은 대체 혹은 경쟁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강화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휴대전화로 인해 부모와의 면대면 대화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늘었다고 주장한다. 김종길과 박수호 (2010) 역시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족구성원간의 중요한 소통채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배진아와 조연하(2010)가 주장하듯이, 텔레비전과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가 갈등과 화해, 단절과 소통의 매개였듯이 디지털미디어는 이러한 동일한 역할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연구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등 SNS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과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디지털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의 연구들 (김종길, 박수호, 2010; 배진아, 조연하, 2010)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산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지 살필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애착이나 의사소통정도가 부모와 자녀의 SNS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2. 가정내 디지털기기사용을 둘러싼 갈등과 부모의 중재

모바일미디어가 대중화된 스마트폰시대에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자녀미디어이용에 대한 중재노력과 그에 따른 효과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몰입하면서 이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46.3%가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김정희, 2013). 여성가족부와 한국언론학회의 조사에서는 학부모의 59% 정도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자녀와 가끔 갈등을 겪는다고 답했고 37%는 자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회, 2013). 즉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와 스마트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특히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사용이 공부에 많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자녀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아예 빼앗아 버리거나 특정시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즉 가정 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이용을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거나 통제하려는 부모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가정 내 부모중재의 효과를 탐색해 왔다. 부모의 중재는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효과를 감소시키려는 부모의 행위를 의미한다(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텔레비전에 대한 부모의 중재효과를 분석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스마트폰중독으로 그 대상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러 연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중재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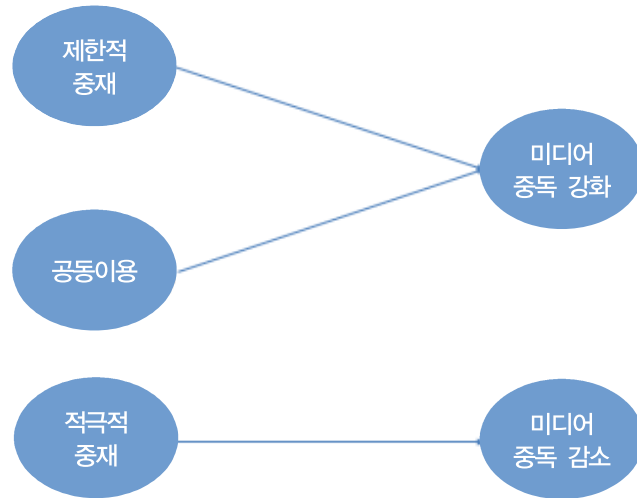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규칙을 통해 자녀의 미디어의 이용시간이나 내용을 통제하려는 제한적 중재와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대화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는 적극적 중재, 미디어의 단순한 공동이용이 부모중재유형으로 거론돼 왔다(Sonck, Nikken, & Haan, 2013). 따라서, 이러한 중재유형을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용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많았다. 최근에는 자녀의 온라인행동을 감시하는 부모의 감시(supervision)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기도 하였다(Nikken & Jansz, 2014). 즉 2세-12세 자녀를 둔 792명의 네덜란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감시유형은 적극적 중재, 제한적 중재, 공동유형과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행동을 통제하는 중재유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국내 연구들의 경우 부모중재가 게임중독 등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령, 이창호 외(2014)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부모중재유형을 크게 제한적 중재, 적극적 중재, 공동이용, 무관심으로 구분하였다. 제한적 중재는 부모가 게임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해놓는 등의 이용시간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고 적극적 중재는 평소 어떤 게임이 유익한지 알려주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일컫는다. 공동이용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이고 무관심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중재유형이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떠한 중재유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부모중재효과를 살펴본 또다른 연구에 따르면, 제한적 중재는 스마트폰중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재를 안하는 경우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창호, 김경희, 2013). 즉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할수록 자녀의 스마트폰중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중독경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자녀의 미디어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부모의 제한적 통제는 청소년의 미디어중독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부모의 제한적 통제는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줄이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임소혜, 조연하, 2011). 반면, 이숙정, 전소현(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적극적 중재가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부모가 자녀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추천해 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청소년의 중독성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공동이용과 제한적 중재는 인터넷중독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은혜, 배상률(2016)의 연구에서도 SNS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자녀에게 알려주는 부모의 적극적 중재행위는 자녀의 SNS의 중독성향을 낮췄다. 이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부모와 대화를 하거나 친구관계를 맺는 등과 같은 공동이용은 오히려 중독성향을 높였고 제한적 중재 또한 중독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의 부모의 적극적 중재행위가 중독성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사용은 스마트폰중독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지, 정세훈, 2015).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제한적 중재는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온라인이용시간을 줄이고 온라인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Lee, 2012). 한편, 유럽연합국가들의 청소년 (11세-16세)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한적 중재가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이용(인터넷중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almus et al., 2015). 이 연구에서 부모의 중재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었다. 즉 적극적 중재, 제한적 중재, 모니터링(자녀의 미디어이용에 대한 감시)과 기술적 해결책이 그것들이다.

이같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제한적 중재나 공동이용은 자녀의 미디어중독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적극적 중재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거나 아예 스마트폰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스마트폰중독이나 사용의 위험성을 알려주거나 긍정적인 미디어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1】 부모의 중재방식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실제로 부모의 적극적 중재는 잘 안 이뤄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정보검색방법을 교육하는 경우, 유익한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충분한 논의후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경우는 각각 20.8%, 31.8%, 28.5%에 그쳤다(이창호, 신나민, 2014).

특히 유아동(만 3세 ~ 9세)을 자녀로 둔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사용규칙(허용장소, 시간 등)에 대한 지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 정보화진흥원, 2017). 즉 아이들이 아무 때나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이에 대한 규칙을 정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다. <표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자의 스마트폰사용줄이기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자녀 뿐 아니라 부모 또한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돼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표 II-1 유아동자녀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1+2순위)

(단위: %)

		사용규칙 지도 (허용장소, 시간 등)	신체적 활동, 놀이로 시간보내기	스마트폰 이용 시 양육자 함께하기	양육자의 스마트폰 사용줄이기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 구하기	기타	없음
전체		51.2	45.1	34.0	32.9	20.8	2.1	3.5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별	과의존위험군	50.5	50.5	37.4	30.0	14.6	1.7	3.5
	고위험군	74.0	45.0	42.5	29.0	9.5	0.0	0.0
	잠재적위험군	48.7	50.9	37.0	30.1	15.0	1.8	3.8
	일반사용자군	51.4	43.6	33.0	33.7	22.5	2.2	3.5
대상별	유아동 (만3~9세)	51.2	45.1	34.0	32.9	20.8	2.1	3.5
성별	남성	52.2	41.4	33.6	34.8	21.3	1.8	3.9
	여성	50.1	49.1	34.3	31.0	20.3	2.4	3.1
학령별	유치원	54.2	51.9	31.8	31.5	16.9	1.5	2.2
	초등학생	49.0	40.1	35.6	34.0	23.7	2.5	4.4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6년 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 110쪽.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이용과 관련하여 잔소리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표 II-2>에 나타난바와 같이 중학생들의 28% 가량이 부모님으로부터 스마트폰사용에 대해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14.2%의 학생들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고 응답했고 26.3%의 학생들은 자기전에 스마트폰을 곁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대화보다 직접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더 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SNS 상에서 관심을 받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도 14.7%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많은 청소년들(57.3%)은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일상화돼 있고 스마트폰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아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충분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표 II-2 중학생의 스마트폰 이용태도 (%)

항목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접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대화가 더 편하다	2.46	21.6	31.4	30.7	12.4	4.0
2) SNS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즐겁다	2.46	22.3	27.0	36.0	11.9	2.8
3)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다	3.51	5.7	7.0	20.0	45.4	11.9
4) 부모님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	2.89	11.9	20.5	39.6	22.1	5.8
5)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와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2.52	22.6	27.1	30.4	15.9	4.0
6) 자기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아예, 손에 쥐고 잠을 잔다	2.62	23.4	23.0	27.2	20.9	5.4
7)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2.28	29.7	30.8	25.3	10.4	3.8

출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2016). '서울교육중단연구 6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36~37쪽.

다른 아시아국가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가령, 2세~7세의 자녀를 둔 인도네시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결과 자녀의 인터넷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성인물이나 폭력물과 같은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의 제한적 중재가 주요한 중재유형으로 나타났다(Sekarasih, 2016). 즉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적 목적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이러한 기기를 지나치게 이용함으로써 해로운 영향(시력저하, 수면방해, 중독 등)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저자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미디어이용을 통제하려는 이러한 제한적 중재유형이 부모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연구들은 부모중재가 중독보다는 다른 역기능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가령, 영국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채팅룸이나 게임, 실시간대화(Instant messaging service)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제한적 통제(interaction restrictions)가 자녀의 온라인위험(음란물 이용, 폭력물 접촉, 개인정보누출 등)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Livingstone & Helsper, 2008). 하지만, 기술적 제한(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모니터링(부모가 자녀의 이메일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과 같은 행위), 적극적 공동이용(active co-use)²⁾과 같은 부모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메쉬(Mesch, 2009)는 부모중재를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와 평가적 중재(evaluative

mediation)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미디어이용시간과 내용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이슈를 자녀와 함께 논의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디어이용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부모의 중재 중 제한적 중재(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 부모가 자녀가 이용한 인터넷사이트의 확인 등)는 청소년들의 온라인불링위험 노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평가적 중재 중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논의하여 자녀가 방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은 경우만이 그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미디어이용에 대한 규칙을 어느 정도 세워 실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디어이용규칙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과 인터넷이용시간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부모애착과 인터넷역기능

부모와의 애착은 인터넷으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역기능 즉 스마트폰중독, 인터넷중독, 사이버 폭력 등을 줄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돼 왔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현실세계를 벗어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 탐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현정, 김세경, 천성문 (2016)이 국내에 발표된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나 의사소통보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과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중독이 덜하다는 것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중 아버지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을 줄이는 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김효성, 서미아, 2014). 이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식사를 자주 하거나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와의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스마트폰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최선우와 김승현(2015)의 연구결과 부모와의 애착은 스마트폰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행위를 지켜보거나 인터넷사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위를 적극적 공동이용 중재로 명명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이 강한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스마트폰중독이 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척도는 신뢰감, 의사소통의 질, 소외감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돼 있다. 비슷한 연구결과가 정귀임과 김장희(2016)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부모애착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을 줄였으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또래애착은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높은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중독성향을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애착은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김서현, 김정규, 2016). 즉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이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등 정서조절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정서관리능력은 중독성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애착은 또한 가족의사소통을 매개로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현희, 김현진, 2014).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낮은 부모애착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며 이는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중독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처럼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을 낮추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이나 정서조절능력, 가족의사소통을 매개로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창호, 김경희(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은 채팅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따돌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애착이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애착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나 역기능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애착이 직접적으로 중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같은 여러 사회심리적 변인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이 자녀의 스마트폰중독이나 인터넷이용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SNS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정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한다.

4. 가족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가족내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도 자녀의 인터넷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김은미와 정화음 (2006)의 연구결과,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이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거나 자녀와의 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정일수록 자녀의 미디어이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진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활발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커뮤니케이션유형이 통제적이고 폐쇄적일수록 청소년들의 언어폭력, 음란물접촉 등 사이버문제행동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정임, 김지혜, 2013). 반면, 개방적 가족커뮤니케이션은 자녀의 미디어이용을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조윤경, 2010).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가족커뮤니케이션의 양태가 어떤 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미디어이용이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한편, 부모의 컴퓨터이용시간은 자녀의 인터넷이용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박소라, 2005). 즉 부모가 컴퓨터를 많이 이용할수록 자녀의 인터넷이용시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모가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자녀의 생활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이는 자녀의 미디어이용을 방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와 자녀간 커뮤니케이션양태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이용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 III 장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제 III 장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본 조사의 설문문항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영역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이 영역에는 부모와 자녀가 평소에 얼마나 대화를 나누는지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가 포함돼 있다. 또한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 주요한 이유와 부모와 자녀가 어떤 행동을 같이 하는 지도 주요 문항들이다.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지도 질문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넬조사를 바탕으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이경상, 안선영, 2009). 당초 한, 중, 일 3개국이 개발한 문항에다 두 문항³⁾을 추가하였다.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운경(2010)의 연구와 외국의 연구(Vieira, 2015)를 참고하여 모두 3문항⁴⁾을 만들었다.

둘째 영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관한 것이다.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사용에 관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SNS를 이용하여 부모와 얼마나 소통하느냐가 설문문항으로 제시돼 있다. 또한 응답자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며 스마트폰에 얼마나 중독돼 있는 지도 측정하였다. 스마트폰중독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과의존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스마트폰중독척도는 한, 중, 일 3개국이 공동으로 만든 설문지문항에는 빠져 있지만 연구진이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추가하였다.

3) “부모는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와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부모님과 자주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 등 2문항이 추가됨.

4) “부모(보호자)는 가족끼리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의 의견을 묻는다”와 “나는 부모(보호자)와 특별한 주제 없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부모(보호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등 총 3문항. 이 문항들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추가하였음.

표 III-1 조사영역 및 문항

영역	조사문항
부모-자녀관계	- 부모와의 대화 정도 - 부모와의 대화 주제 - 부모와의 대화 선호 정도 -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의 공동행위 - 부모님과의 갈등 - 부모애착 -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정도 - 이상적인 가족관계
인터넷과 부모-자녀관계	- 인터넷이용정도 - 가정내 핸드폰사용규칙준수여부 - SNS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정도 - 스마트폰중독정도

본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리서치회사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생들이다. 표집을 위해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과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으로 층화한 후 학생규모를 고려하여 학교를 표집하는 층화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한국리서치, 2017). 그 결과,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9개 등 총 38개의 학교가 표집되었다. 한 학교 당 2개 학급을 방문조사하였다. 가령, 초등학교 한 군데를 방문했으면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과 6학년 한 학급을 조사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모두 1,936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948명, 중학생이 988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1,053명으로 54.4%를 차지했고 여학생은 883명으로 45.6%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많았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2017년 9월 한달간 진행되었다.

2. 조사결과

1) 정보기기 소유 실태

응답자들의 정보기기 소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간단한 기능을 가진 피쳐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8.2%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86.3%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95.4%가 어떤 형태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10.8%)이 중학생(5.7%)보다 피쳐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중학생(91.2%)의 경우 초등학생(81.1%)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태블릿 PC의 경우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34.3%)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PC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76.6%가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핸드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PC 중 어느 한가지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표 Ⅲ-2 집단별 정보기기 소유 실태

(단위: %)

기기	구분		소유	비소유
피쳐폰	전체		8.2	91.8
	성별	남	7.6	92.4
		여	8.8	91.2
	교급	초	10.8	89.2
		중	5.7	94.3
스마트폰	전체		86.3	13.7
	성별	남	85.1	14.9
		여	87.7	12.3
	교급	초	81.1	18.9
		중	91.2	8.8
태블릿 PC	전체		34.3	65.7
	성별	남	31.1	68.9
		여	38.2	61.8
	교급	초	35.3	64.7
		중	33.3	66.7
컴퓨터 PC	전체		76.6	23.4
	성별	남	78.3	21.7
		여	74.5	25.5
	교급	초	72.9	27.1
		중	80.2	19.8
아무 기기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전체		0.0	0.0

2)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98.3%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카이자승=6.83, $p<0.05$).

표 III-3 인터넷사용비율

구분		인터넷을 사용함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전체		98.3	1.7
성별	남	98.5	1.5
	여	98.2	1.8
교급	초	97.6	2.4
	중	99.1	0.9

3) 첫 인터넷 사용 연령

응답자들이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평균 9.6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인터넷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다. 남녀별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인터넷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첫 인터넷 사용 연령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60	2.04
성별	남	9.64	2.14
	여	9.55	1.91
교급	초	9.22	1.82
	중	9.55	2.17

4) 주중 인터넷 사용 시간

주중 인터넷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5%가 1시간~2시간미만을 사용하였고 2시간~ 3시간미만이 21.6%, 1시간미만이 20.3%로 그 뒤를 이었다. 4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10.8%) 보다 여학생(14.8%)이 더 높았고 초등학생(8.4%)보다 중학생(16.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중이용자들이 여학생집단과 중학생집단에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5 주중 인터넷사용시간

(단위: %)

구분		4시간 이상	3시간~ 4시간미만	2시간~ 3시간미만	1시간~ 2시간미만	1시간 미만	사용안함
전체		12.6	15.4	21.6	28.5	20.3	1.7
성	남	10.8	11.9	21.5	32.5	21.5	1.8
	여	14.8	19.5	21.7	23.7	18.8	1.5
교급	초	8.4	11.9	18.4	29.4	29.0	2.8
	중	16.6	18.6	24.6	27.6	12.0	0.6

5) 주말 인터넷 사용 시간

주말에 하루 평균 얼마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23.0%)이 3시간이상~5시간미만으로 답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여학생(10.6%)이 남학생(5.7%)보다 배 가량 많았고 중학생(10.2%)이 초등학생(5.5%)보다 배가량 많았다.

표 III-6 주말 인터넷사용시간

(단위: %)

구분		15시간 이상	10시간~15시간 미만	5시간~10시간 미만	3시간~5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1시간 미만	사용 안함
전체		2.4	5.6	15.7	23.0	21.7	18.4	11.3	2.0
성	남	2.0	3.7	15.3	24.9	22.5	18.1	11.2	1.6
	여	2.8	7.8	16.1	20.6	20.8	17.9	11.4	2.6
교급	초	1.4	4.1	8.2	17.5	23.4	25.1	17.0	3.3
	중	3.3	6.9	22.7	28.1	20.1	12.1	6.0	0.8

6) 부모의 자녀 인터넷사용용도 인지 여부

부모가 응답자들이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8.6%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비율은 여학생(66.7%)보다는 남학생(70.2%), 중학생(64.4%)보다는 초등학교생(73.1%)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7 자녀 인터넷사용용도 인지여부

(단위: %)

구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른다고 생각한다	계
전체		68.6	27.4	4.0	100.0
성	남	70.2	26.3	3.5	100.0
	여	66.7	28.6	4.7	100.0
교급	초	73.1	22.9	4.0	100.0
	중	64.4	31.6	4.1	100.0

7) 인터넷사용중의 태도등에 관한 부모의 주의

인터넷의 위험성과 사용 중의 태도 등에 관해 부모로부터 주의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응답자의 22.3%가 자주 주의를 받는다고 답했고 가끔 주의를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57.4%였다. 즉 응답자의 80% 가량이 인터넷사용으로 부모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21.4%)보다 여학생(23.5%)이 자주 주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Ⅲ-8 인터넷사용에 관한 부모의 주의

(단위: %)

구분		자주 주의를 받음	가끔 주의를 받음	거의 주의를 받지 않음	계
전체		22.3	57.4	20.2	100.0
성	남	21.4	59.0	19.6	100.0
	여	23.5	55.5	21.0	100.0
교급	초	22.4	54.2	23.4	100.0
	중	22.3	60.5	17.3	100.0

8) 휴대전화/컴퓨터에 관한 사용규칙

가정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사용시간, 사용내용, 사용방법과 매너, 사용요금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5.1%, 47.2%, 58.7%, 55.0%였다. 즉 네 가지 규칙 중 사용방법과 매너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체로,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더 많이 규칙을 정해 놓고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규칙을 정해놓고 준수할 경우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질문한 결과 10명 중 3명 정도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는다고 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상호 논의하에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용요금에 관한 규칙의 경우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비율이 41.9%로 다른 규칙들에 비해 높았다. 대체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가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많았으나 사용요금에 관한 규칙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일방적 결정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사용시간, 사용내용, 사용방법과 매너에 관한 규칙의 경우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에게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9 휴대전화/컴퓨터 사용규칙

(단위: %)

구분			사용규칙 준수 여부			사용규칙을 정해놓고 준수할 경우 사용규칙을 정한 방법	
			정해놓고 지키고 있음	정해 놓았으나 지키지 않고 있음	정해놓지 않음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함	상호 논의하에 정함
사용시간에 관한 규칙	전체		45.1	16.0	38.9	29.0	71.0
	성	남	49.9	15.0	35.1	30.4	69.6
		여	39.4	17.2	43.4	26.9	73.1
	교급	초	56.7	14.3	29.0	30.8	69.2
		중	33.9	17.7	48.4	26.1	73.9
사용내용에 관한 규칙	전체		47.2	6.6	46.1	29.4	70.6
	성	남	48.7	6.8	44.5	34.9	65.1
		여	45.6	6.4	48.0	22.4	77.6
	교급	초	60.3	5.8	33.9	31.2	68.8
		중	34.6	7.5	57.9	26.2	73.8
사용방법과 매너에 관한 규칙	전체		58.7	9.7	31.6	32.2	67.8
	성	남	60.7	9.2	30.1	34.4	65.6
		여	56.3	10.2	33.5	29.4	70.6
	교급	초	67.6	8.5	23.9	34.2	65.8
		중	50.2	10.7	39.1	29.6	70.4
사용요금에 관한 규칙	전체		55.0	3.2	41.8	41.9	58.1
	성	남	57.5	3.5	39.0	41.1	58.9
		여	51.9	2.9	45.1	42.9	57.1
	교급	초	63.8	2.6	33.6	41.1	58.9
		중	46.4	3.8	49.8	42.9	57.1

9) SNS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

SNS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의 경우 자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4%에 달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고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응답자

의 57.8%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를 매개로 한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청소년에게 일상화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0 SNS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 (단위: %)

구분		자주 함	가끔 함	거의 하지 않음	전혀 하지 않음
전체		18.4	39.4	21.9	20.4
성	남	14.1	39.3	23.0	23.5
	여	23.4	39.4	20.6	16.6
교급	초	20.0	35.2	19.3	25.5
	중	16.9	43.3	24.3	15.6

10) SNS 게시물 공유

응답자 본인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지 알아본 결과 단지 18.1%만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23.3%에 불과하였다. 대체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부모와 게시물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중학생들에 비해 자신들이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많이 공유하려 했다.

표 Ⅲ-11 SNS 게시물 공유 (단위: %)

구분		자신이 올린 게시물 공유			타인이 올린 게시물 공유	
		공유함	공유하지 않음	게시물을 올린적 없음	공유함	공유하지 않음
전체		18.1	37.6	44.2	23.3	76.7
성	남	14.9	36.4	48.7	18.0	82.0
	여	22.0	39.1	38.9	29.6	70.4
교급	초	21.7	22.8	55.6	24.2	75.8
	중	14.8	51.6	33.5	22.3	77.7

11) 디지털기기가 미친 영향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SNS를 통해 부모와 대화하는 경우보다 면대면 대화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SNS 이용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 가량은 부모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정보기기를 매개로 대화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21.7%는 부모와 새로운 어플이나 SNS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디지털기기를 매개로 한 대화보다는 부모와의 직접적인 면대면 대화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응답자의 18.3%는 가족들과 식사하거나 단란한 시간에 자주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21.1%는 인터넷에 빠져서 잠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초등학생(13.0%)보다 중학생(28.7%)들이 인터넷으로 인한 수면부족을 많이 호소하였다. 게임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돈을 많이 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1.5%였다. 특히 여학생(4.0%)보다 남학생(17.8%)의 경우 디지털게임사용으로 돈을 많이 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게임을 즐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12 디지털기기 영향

(단위: %)

문항	구분		매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SNS를 통해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2.1	5.5	35.1	57.4
	성별	남	2.4	6.1	31.5	60.0
		여	1.6	4.7	39.3	54.3
	교급	초	1.9	4.2	31.7	62.2
		중	2.1	6.7	38.3	52.9
SNS 이용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늘었다	전체		1.8	10.1	34.9	53.3
	성별	남	2.2	10.1	32.5	55.1
		여	1.3	10.0	37.6	51.0
	교급	초	1.7	10.1	27.9	60.3
		중	1.8	10.1	41.4	46.6

문항	구분		매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모와 새로운 어플이나 SNS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전체		4.0	17.7	30.1	48.2
	성별	남	3.7	14.8	30.0	51.6
		여	4.4	21.2	30.1	44.2
	교급	초	4.6	15.5	27.0	52.9
		중	3.5	19.8	33.0	43.8
부모와 SNS나 전화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전체		46.7	33.6	10.0	9.7
	성별	남	42.1	34.0	11.2	12.7
		여	52.1	33.1	8.5	6.2
	교급	초	53.5	26.5	8.9	11.1
		중	40.3	40.3	11.0	8.4
가족들과 식사하거나 단란한 시간에 나는 자주 핸드폰을 사용한다	전체		3.2	15.1	33.5	48.2
	성별	남	3.9	14.5	33.0	48.6
		여	2.3	15.8	34.1	47.8
	교급	초	2.5	11.6	29.3	56.6
		중	3.8	18.4	37.6	40.2
나는 인터넷에 빠져서 잠이 부족할 때가 있다	전체		5.0	16.1	30.5	48.4
	성별	남	4.1	15.5	31.4	49.1
		여	6.1	16.9	29.4	47.6
	교급	초	4.0	9.0	27.4	59.6
		중	5.9	22.8	33.4	37.9
나는 게임이나 스마트폰 어플 때문에 돈을 많이 쓴 적이 있다	전체		3.4	8.1	15.4	73.1
	성별	남	5.4	12.4	20.4	61.9
		여	1.0	3.0	9.5	86.5
	교급	초	3.5	5.1	12.8	78.7
		중	3.4	10.9	17.9	67.8

12) 가족과 함께 하는 행동

가족과 함께 하는 행동 가운데는 함께 생일 축하하기가 가장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주 함께 인터넷하기와 함께 책 읽기는 각각 10.7%, 11.9%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10%에 머물렀다. 자주 함께 운동하기도 전체 응답자의 24.1%를 차지해 응답자 4명 중 1명 정도가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응답자의 36.5%는 가족과 함께

자주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TV 시청과 인터넷이용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주 부모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부모와 자주 함께 쇼핑하거나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운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III-13 가족과의 행동

(단위: %)

문항	구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함께 TV 시청하기	전체		63.8	27.8	8.4
	성별	남	61.5	29.2	9.3
		여	66.4	26.1	7.5
	교급	초	63.8	27.5	8.7
		중	63.7	28.1	8.2
함께 인터넷하기	전체		10.7	36.0	53.3
	성별	남	9.3	36.4	54.3
		여	12.5	35.4	52.1
	교급	초	11.4	38.5	50.1
		중	10.1	33.6	56.4
함께 운동하기	전체		24.1	44.3	31.7
	성별	남	25.2	42.5	32.3
		여	22.8	46.4	30.8
	교급	초	31.8	43.8	24.4
		중	16.6	44.8	38.6
함께 쇼핑하거나 여행하기	전체		54.8	36.0	9.2
	성별	남	48.8	39.4	11.7
		여	61.9	32.0	6.1
	교급	초	61.1	31.4	7.5
		중	48.7	40.5	10.8

문항	구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함께 책 읽기	전체		11.9	30.9	57.2
	성별	남	11.3	32.2	56.5
		여	12.7	29.3	58.0
	교급	초	17.1	34.0	48.9
		중	6.9	27.9	65.2
함께 집안일 하기	전체		36.5	45.8	17.7
	성별	남	36.3	46.5	17.2
		여	36.7	44.9	18.4
	교급	초	39.7	44.1	16.2
		중	33.4	47.4	19.2
함께 생일축하하기	전체		83.1	14.2	2.7
	성별	남	79.8	16.6	3.5
		여	87.0	11.3	1.7
	교급	초	86.6	11.1	2.3
		중	79.8	17.2	3.1

13) 부모와의 소통 환경

43.1%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이야기 할 때 부모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혹은 가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모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각자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응답자의 56.5%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서로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험을 자주 혹은 가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절반 가량의 청소년들(49.6%)이 공부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데 부모로부터 게임 등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III-14 부모와의 소통

(단위: %)

문항	구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부모님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나와 이야기 한다	전체		6.7	36.4	56.9
	성별	남	6.1	35.9	58.0
		여	66.4	26.1	7.5
	교급	초	63.8	27.5	8.7
		중	63.7	28.1	8.2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항상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고 한다	전체		2.1	20.2	77.8
	성별	남	1.9	21.8	76.3
		여	2.3	18.2	79.5
	교급	초	2.2	19.9	77.9
		중	1.9	20.5	77.6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전체		81.7	15.5	2.8
	성별	남	81.4	15.4	3.1
		여	82.1	15.5	2.4
	교급	초	83.6	13.2	3.2
		중	79.9	17.6	2.4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각자의 핸드폰을 사용한다	전체		10.0	46.5	43.5
	성별	남	10.1	43.6	46.3
		여	9.9	49.9	40.2
	교급	초	8.6	43.0	48.5
		중	11.4	49.9	38.7
공부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게임 등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	전체		10.5	39.1	50.4
	성별	남	10.9	41.1	48.0
		여	10.1	36.8	53.1
	교급	초	8.9	33.5	57.6
		중	12.1	44.5	43.4

14) 부모와의 대화 내용

응답자들이 평소 부모와 대화하는 내용으로는 공부와 학교생활, 친구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 나온 빈도를 보면 학교생활이 36.4%로 가장 많았고 공부가 35.4%로 뒤를

이었다. 2순위 응답 중에는 학교생활이 40.2%로 가장 많았다. 3순위 응답으로는 친구문제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친구문제에 대해 부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평소 청소년들이 부모와 나누는 대화는 주로 학교생활과 친구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15 부모와의 대화내용

(단위: %)

대화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공부	35.4	9.6	8.7
학교생활	36.4	40.2	7.4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뉴스	3.3	9.6	14.0
취미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17.0	14.6	12.7
장래문제	2.4	10.4	12.4
친구문제	3.1	11.6	34.4
용모와 패션	0.8	2.0	4.3
금전관계	0.3	1.0	2.1
기타	1.4	0.8	3.8
계	100	100	100

15) 부모와의 갈등

최근 6개월간 부모와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 지 모두 체크하라고 하였다. 그 결과, 공부로 인한 갈등(44.7%)과 생활습관으로 인한 갈등(42.4%)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비율도 전체응답자의 33.1%로 드러나 인터넷이용 시간이나 내용에 관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패션(5.2%), 가족관계(6.5%), 친구사귀(13.3%), 장래문제(14.6%),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부모와의 생각이나 관점차이(15.9%) 등으로 인한 갈등은 비교적 적었다. 청소년 10명 중 2명 가량은 돈쓰는 문제(21.0%)나 집안일(23.8%)로 부모와의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로 인한 갈등의 경우 중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집안일로 인한 갈등은 여학생들에게서

많았다. 패션문제에 관한 부모와의 갈등도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빈번히 발생하였다. 장래문제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들에게서 부모와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응답자의 25%는 부모와의 갈등이 특별히 없었다고 응답했다.

표 III-16

부모와의 갈등

(단위: %)

문제	구분		없었음	있었음
공부 (숙제와 성적 등)	전체		55.3	44.7
	성별	남	55.0	45.0
		여	55.6	44.4
	교급	초	64.1	35.9
		중	46.8	53.2
집안일	전체		76.2	23.8
	성별	남	81.9	18.1
		여	69.5	30.5
	교급	초	79.1	20.9
		중	73.5	26.5
친구사귀	전체		86.7	13.3
	성별	남	89.3	10.7
		여	83.7	16.3
	교급	초	87.1	12.9
		중	86.3	13.7
돈쓰는 것	전체		79.0	21.0
	성별	남	81.0	19.0
		여	76.6	23.4
	교급	초	84.0	16.0
		중	74.2	25.8
생활습관	전체		57.6	42.4
	성별	남	59.9	40.1
		여	54.8	45.2
	교급	초	62.3	37.7
		중	53.0	47.0

문제	구분		없었음	있었음
패션	전체		94.8	5.2
	성별	남	97.9	2.1
		여	91.2	8.8
	교급	초	94.8	5.2
		중	94.8	5.2
가족관계	전체		93.5	6.5
	성별	남	94.2	5.8
		여	92.8	7.2
	교급	초	93.0	7.0
		중	94.0	6.0
사생활	전체		73.6	26.4
	성별	남	74.7	25.3
		여	72.3	27.7
	교급	초	75.8	24.2
		중	71.5	28.5
인터넷사용	전체		68.9	33.1
	성별	남	69.8	30.2
		여	67.7	32.3
	교급	초	72.3	27.7
		중	65.6	34.4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차이	전체		84.1	15.9
	성별	남	86.3	13.7
		여	81.4	18.6
	교급	초	87.9	12.1
		중	80.5	19.5
장래	전체		85.4	14.6
	성별	남	85.5	14.5
		여	85.4	14.6
	교급	초	89.5	10.5
		중	81.6	18.4

문제	구분		없었음	있었음
기타	전체		99.1	0.9
	성별	남	99.3	0.7
		여	98.9	1.1
	교급	초	99.1	0.9
		중	99.2	0.8
특별히 없었음	전체		75.0	25.0
	성별	남	72.7	27.3
		여	77.7	22.3
	교급	초	67.8	32.2
		중	81.9	18.1

16) 스마트폰과의존

스마트폰과의존을 측정하는 10개문항의 점수를 합쳐 스마트폰과의존 척도를 만들었다⁵⁾. 따라서, 전체 점수는 10점에서 40점까지 분포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기준을 토대로 22점 이하의 일반군, 23점~30점은 잠재적 위험군, 31점~40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체응답자의 20.4%가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에 속했다. 남녀간 차이보다 학교급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초등학생(14.5%)보다 중학생의 위험군(25.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스마트폰 과의존 집단 분류

(단위: %)

구분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전체		79.6	17.9	2.5
성별	남	81.1	16.5	2.4
	여	77.9	19.5	2.6
교급	초	85.5	12.5	2.0
	중	74.6	22.5	2.9

5) 역코딩 실시함 (1점-4점, 2점-3점, 3점-2점, 4점-1점). 신뢰도는 0.909로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사용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위험군집단의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응답자들에게 사용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지를 질문하였고 지키고 있을 경우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상호 의논하여 정했는지를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한 집단 보다 상호 의논하여 규칙을 정한 집단에게서 위험군이 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시간, 사용내용, 사용방법과 매너, 사용요금에 관한 규칙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논하여 정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스마트폰중독위험군이 적었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18 규칙결정방법에 따른 스마트폰과의존 집단 분류

구분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전체	차이검증
사용시간	일방적 규칙 결정	155명 (78.3%)	36명 (18.2%)	7명 (3.5%)	198명 (100%)	카이제곱= 17.84 (p<.001)
	논의에 의한 결정	446명 (89.7%)	47명 (9.5%)	4명 (0.8%)	497명 (100%)	
사용내용	일방적 규칙 결정	169명 (76.8%)	44명 (20.0%)	7명 (3.2%)	220명 (100%)	카이제곱= 13.92 (p<.01)
	논의에 의한 결정	459명 (87.4%)	60명 (11.4%)	6명 (1.1%)	525명 (100%)	
사용방법과 매너	일방적 규칙 결정	226명 (76.6%)	56명 (19.0%)	9명 (2.5%)	364명 (100)	카이제곱= 22.36 (p<.001)
	논의에 의한 결정	550명 (87.9%)	69명 (11.0%)	7명 (1.1%)	626명 (100%)	
사용요금	일방적 규칙 결정	284명 (78.0%)	71명 (19.5%)	9명 (2.5%)	364명 (100%)	카이제곱= 10.14 (p<.01)
	논의에 의한 결정	430명 (86.2%)	59명 (11.8%)	10명 (2.0%)	499명 (100%)	

다음은 각 항목별 평균점수이다.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는 것에 매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문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10문항 가운데는 스마트폰 때문에 친구관계로 인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적었다.

표 III-19 스마트폰과의존 척도

척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2.07	0.85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2.07	0.88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2.07	0.83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2.00	0.88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1.65	0.73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1.74	0.79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1.51	0.72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1.73	0.85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1.40	0.65
10)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1.58	0.75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

17) 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먼저, 주중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투입된 독립변인은 인구학적 변인⁶⁾, 첫 인터넷사용연령,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 여부, 부모애착⁷⁾,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중재⁸⁾ 등이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들은 종속변수의 1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인구학적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주중에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

6) 경제수준은 역코딩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못산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7) 부모애착의 경우 모두 5문항(부모는 나에게 대해 이해해준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항간 신뢰계수는 .860 으로 높게 나타났다.

8) 규칙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는 항목을 기준으로 삼아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는 경우와 정해놓았으나 지키지 않은 경우의 영향력을 보고자 하였다.

들의 인터넷이용이 높았다. 또한 자기집의 경제상황이 힘들다고 느낄수록 인터넷이용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다.

첫 인터넷사용연령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빠를수록 인터넷이용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스마트폰과의존위험 군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을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애착은 주중 인터넷이용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중 오프라인 대화나 온라인 대화는 인터넷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신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경우는 인터넷이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경우는 인터넷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중재 가운데는 사용시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가 규칙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인터넷이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규칙들에 대한 준수는 주중 인터넷이용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이면서 중학생이고 일찍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주중에 인터넷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에 관한 규칙을 정해 놓고 이를 실천할 경우 규칙을 정해 놓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의 인터넷이용시간을 줄이려면 가정에서 사용시간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20 주중 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B (표준화계수)	t 값	VIF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121***	3.909	1.055
	교급(중학교=1)	.139***	4.208	1.218
	경제수준(1~5)	.058+	1.836	1.109
첫 인터넷 사용연령		-.158***	-5.073	1.071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1)		.157***	4.904	1.139
부모애착		-.029	-.790	1.508

		B (표준화계수)	t 값	VIF
부모와의 상호작용	오프라인대화	-.041	-1.196	1.321
	SNS 대화	.016	.490	1.155
	자신이 올린 게시물공유 (공유=1)	-.095*	-2.580	1.508
	타인이 올린 게시물 공유 (공유=1)	.059+	1.705	1.308
부모중재	사용시간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107**	-2.652	1.810
	사용시간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07	.190	1.547
	사용내용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55	-1.301	2.009
	사용내용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49	-1.299	1.554
	사용방법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29	-0.724	1.758
	사용방법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15	.396	1.621
	사용요금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24	.649	1.523
	사용요금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31	.920	1.287
수정된 R 제곱		.159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주말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전체변량의 1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는 학교급과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쳤다. 즉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주말에 인터넷을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주말에 인터넷을 이용할 경향이 높았다. 주중인터넷 이용과 마찬가지로 첫 인터넷사용연령대가 빠를수록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고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에 속할수록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부모애착은 주말인터넷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가운데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대화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말 인터넷이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말 인터넷이용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관한 규칙준수의 경우 사용시간과 사용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고 이를 실천하는 경우 규칙이 없는 집단에 비해 주말인터넷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용시간과 사용내용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하는 경우가 규칙이 아예 없는 경우보다 주말 인터넷이용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표 III-21 주말 인터넷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B (표준화계수)	t 값	VIF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30	.991	1.055
	교급(중학교=1)	.178***	5.478	1.220
	경제수준(1~5)	.065*	2.083	1.109
첫 인터넷 사용연령		-.119***	-3.894	1.071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1)		.209***	6.643	1.138
부모애착		-.057	-1.563	1.510
부모와의 상호작용	오프라인대화	-.014	-.411	1.320
	SNS 대화	.046	1.451	1.157
	자신이 올린 게시물공유 (공유=1)	-.128***	-3.520	1.512
	타인이 올린 게시물 공유 (공유=1)	.075*	2.211	1.310
부모중재	사용시간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99*	-2.486	1.807
	사용시간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05	-.149	1.548
	사용내용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84*	-2.016	2.007

		B (표준화계수)	t 값	VIF
	사용내용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34	-.922	1.553
	사용방법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23	-.580	1.757
	사용방법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19	.511	1.622
	사용요금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31	.853	1.517
	사용요금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44	-1.328	1.286
수정된 R 제곱		.187		

주. + $p < .1$, * $p < .05$, *** $p < .001$

18) 스마트폰과의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의존위험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은 과의존위험집단인 경우가 1, 그렇지 않은 집단이 경우가 0이다. 분석결과 주말인터넷 이용시간⁹⁾이 많을수록 스마트폰과의존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스마트폰과의존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와의 상호작용가운데는 오프라인대화가 활발한 학생일수록 스마트폰과의존위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변인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중재 가운데는 사용시간규칙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시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집단에게서 스마트폰과의존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시간과 사용방법에 관한 규칙을 정해 놓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규칙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스마트폰과의존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주중인터넷이용시간은 주말인터넷이용시간과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 다중공선성문제가 발생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22 스마트폰과의존위험집단 예측 요인

		B	Odds Ratio	OR 신뢰구간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323+	1.381	.983-1.941
	교급(중학교=1)	.231	1.260	.853-1.861
	경제수준(1~5)	.149	1.161	.940-1.434
첫 인터넷 사용연령		.041	1.042	.961-1.130
주말인터넷사용시간		.414***	1.513	1.333-1.718
부모애착		-.556**	.573	.407-.807
부모와의 상호작용	오프라인대화	-.348+	.706	.486-1.028
	SNS 대화	.158	1.172	.960-1.430
	자신이 올린 게시물공유 (공유=1)	-.236	.789	.500-1.247
	타인이 올린 게시물 공유 (공유=1)	.346	1.413	.933-2.140
부모중재	사용시간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36	.964	.607-1.531
	사용시간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718**	2.050	1.267-3.317
	사용내용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238	1.268	.802-2.006
	사용내용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57	.945	.465-1.920
	사용방법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31	1.031	.668-1.592
	사용방법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693*	1.999	1.115-3.583
	사용요금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178	.837	.563-1.243
	사용요금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458	1.581	.711-3.513
-2로그우드		873.217		

주. + p<.1, * p<.05, ** p<.01, *** p<.001

스마트폰과의존척도점수의 평균값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변수들은 전체변량의 2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는 스마트폰과의존예측요인으로 경제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신이 못산다고 생각할수록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록 경제상황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생각을 물었지만 경제적 수준과 스마트폰중독 간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집단이 초등학생집단에 비해 미약하나마 스마트폰과의존에 빠질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첫 인터넷사용연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말인터넷사용시간은 스마트폰과의존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은 스마트폰과의존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면대면대화 또한 스마트폰과의존위험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인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할 경우 스마트폰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에 관한 규칙의 경우 사용시간이나 사용방법에 관한 규칙을 정해 놓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규칙을 아예 정해놓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스마트폰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규칙을 준수해놓고 이를 실천할 경우 스마트폰과의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III-23 스마트폰과의존 예측 요인

		B (표준화계수)	t 값	VIF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11	.381	1.051
	교급(중학교=1)	.057+	1.768	1.259
	경제수준(1~5)	.087**	2.873	1.112
첫 인터넷사용 연령		.007	.250	1.088
주말인터넷사용시간		.289***	9.226	1.197
부모애착		-.132***	-3.762	1.498
부모와의 상호작용	오프라인대화	-.060+	-1.813	1.314
	SNS 대화	.011	.366	1.157

		B (표준화계수)	t 값	VIF
	자신이 올린 게시물공유 (공유=1)	-.058	-1.638	1.531
	타인이 올린 게시물 공유 (공유=1)	.057+	1.748	1.313
부모중재	사용시간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58	1.514	1.820
	사용시간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183***	5.160	1.532
	사용내용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08	.190	2.014
	사용내용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16	-.461	1.555
	사용방법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11	-.302	1.757
	사용방법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74*	2.038	1.609
	사용요금규칙준수 (기준=규칙없음)	-.053	-1.491	1.517
	사용요금규칙미준수 (기준=규칙없음)	.046	1.405	1.287
수정된 R 제곱		.234		

주. + p<.1, * p<.05, ** p<.01, *** p<.001

19) 부모와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정도¹⁰⁾ 등 관련 요인들이 부모와의 면대면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환경에 놓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면대면 대화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SNS를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면대면대화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부모와 공유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면대면 대화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다.

10) 문항간신뢰계수는 .805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부모와의 면대면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대화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중독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전체변량의 2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부모와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표준화계수)	t 값	VIF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25	.866	1.034
	교급(중학교=1)	-.017	-.548	1.216
	경제수준(1~5)	-.052+	-1.721	1.114
첫 인터넷사용 연령		.014	.463	1.068
주말인터넷사용시간		-.014	-.442	1.259
스마트폰과의존정도		-.091**	-2.864	1.238
부모와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368***	11.440	1.258
부모와의 SNS 대화		.071*	2.322	1.123
부모와 자신이 올린 게시물공유 (공유=1)		-.007	-.200	1.503
부모와 타인이 올린 게시물 공유 (공유=1)		.078*	2.374	1.296
수정된 R 제곱		.211		

주. + p<.1, * p<.05, ** p<.01, *** p<.001

제 I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I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소셜네트워크가 활성화된 환경 하에서 부모와 자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SNS를 통한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면대면대화를 대체할 정도인 것은 아니었다. 즉 청소년들은 여전히 부모와의 면대면대화를 더 즐기고 있었다. SNS를 통한 부모와의 대화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면대면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온라인대화가 오프라인대화를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공간을 통해 부모와 연락을 자주 취하는 청소년일수록 면대면대화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면대면대화를 통해 부모와 접촉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기기의 등장으로 면대면대화 뿐 아니라 SNS가 새로운 소통채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SNS를 비롯한 디지털기기의 확산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부모와의 면대면대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발생한 부모와의 갈등요인 중에서 3명중 1명 정도가 인터넷사용시간이나 내용에 대해 답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인터넷사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인터넷이용시간을 줄이고 스마트폰중독을 줄이는 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서 제시한대로 사용시간과 사용내용에 대한 규칙준수는 인터넷이용시간을 줄이는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스마트폰과의존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미디어이용시간이나 내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스마트폰과의 존을 줄이는 궁극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오히려 사용시간이나 사용방법

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아예 규칙이 없는 경우에 비해 스마트폰집착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과의존위험집단은 부모가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한 집단보다 합의에 의해 정한 집단에게서 훨씬 덜 나타나 규칙을 정할 경우 부모와 자녀가 서로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대화와 부모애착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의존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면대면대화와 애착이 스마트폰중독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책임을 알려주고 있다.

2. 정책제언

이 절에서는 디지털시대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제언에 앞서 현재 문제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과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안(관계부처 합동, 2017)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 및 스마트폰 관련 정책과제들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는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과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등 두 가지이다. 53 과제는 주요내용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가 제시되어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6).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유를 전담하는 전담상담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70 과제는 주요 내용 중에 2017년까지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시청자미디어 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가 제시되어 있다. 이 과제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것이나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에는 정책과제 중 대과제로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중과제로 43에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이 제시되어 있다. 43 과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강화와 치유 강화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책 제언 시에 제시하고자 한다.

1) 미디어이용시간 등에 관한 규칙 준수 및 실천

디지털기기의 확산으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매개로 한 가족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과다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무조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빼앗는 등의 행위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는 곧 부모와 자녀의 신뢰나 애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비교적 좋은 방법은 자녀의 스마트폰이용시간에 관한 규칙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논의하여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다.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미디어이용시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인터넷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따라서, 가령 하루에 정해진 공부를 다 했으면 30분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세워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다. 물론, 규칙을 준수했을 경우 그에 따른 긍정적 보상은 부모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모의 지나친 스마트폰 이용 자제¹¹⁾

부모가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집착한 나머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더구나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자녀의 미디어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아이들은 부모의 미디어이용행태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이를 따라하려고 한다. 특히 부모가 디지털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자녀와의 면대면 대화도 감소할 수 있다.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정도는 스마트폰과의존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가급적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굳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으면 아이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나 아이들이 잠든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모들 스스로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지 성찰해보고 자녀와의 면대면 상황에서 스마트폰에 탐닉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11) 이 내용은 디지털타임스(2017년 9월 5일자)에 실린 바 있음.

3) 가정 내에서 부모의 적극적 중재 역할 필요

앞서 논의했듯이, 부모의 중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부모가 미디어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을 자녀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때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줄 때 핸드폰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잘못사용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지를 자녀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피쳐폰을 사 준 뒤 어느 정도 통제력이 형성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는 문자와 통화기능 중심의 피쳐폰을 사주는 것이 자녀의 미디어몰입이나 과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정도 자제력과 통제력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부모와 자녀의 애착 및 친밀감 형성

인터넷중독이나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애착이 중독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은 스마트폰과의존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결여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디지털기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중독 등 역기능을 예방하려면 자녀와의 친밀감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면대면 대화도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5) 부모대상의 미디어교육 강화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디지털 시대에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지나친 미디어이용에 관해 어떤 중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기기에 익숙해 IT 기기를 부모보다 훨씬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의 미디어활용격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격차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미디어이용행태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미디어관련 단체나 기관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토크콘서트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캠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이나 직장 등에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6) 올바른 미디어이용을 위한 부모용 가이드북 발간

앞서 논의했듯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행태나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잘못된 미디어이용 습관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올바르게 미디어를 활용할 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용 가이드북 발간이 매우 필요하다. 즉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자녀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 부모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사용단계별 교육내용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스마트폰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중재노력을 해야 하는 지, 유해콘텐츠차단앱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 것인지 등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용 가이드북이 발간된다면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학교를 거쳐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청소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청소년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미디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다루고 이를 지원하는 법령(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의안번호 1901032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6900 김희정의의원 대표발의)가 이루어졌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출범하여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이 또다시 지속되고 있다(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2017). 향후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배상률(2014)은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으로 네덜란드의 미디어 코치(Media Coach)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처럼 학교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교 도서관이나 미디어센터나 기관 등에 미디어 코치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미디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청소년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강화를 통한 건전한 매체 이용 활성화

건전한 매체 이용은 청소년 스스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중에서 미디어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건전한 매체 이용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9) 학교 자율참여형 미디어교육 강화

미디어 건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 자율의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와 자율참여형 정보윤리학교를 운영 중이다. 2016년 현재 161개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차원의 자율 학교 운영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시 치유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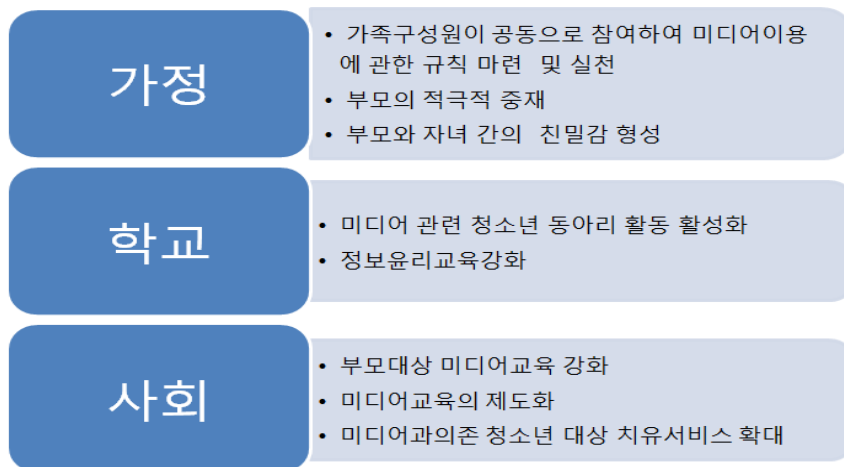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립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부터 개원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하여 학습·정서·행동 상에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립 시설인 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을 2014년부터 초등학교 폐교(무주군)를 활용해 운영중이며 2017년 연 14회에 걸쳐 420명의 과의존 청소년들을 위한 상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나 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을 권역별로 확대하고 과의존 청소년들을 돕는 전담상담사를 늘려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 및 학습 강화¹²⁾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있지만 대부분 게임이나 SNS,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나 기능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오락적 기능을 줄이고 가급적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정 내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함께 자료를 찾거나 역사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뉴스를 검색하면서 함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해 논의할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의 면대면 소통도 SNS를 통해 충분히 강화될 수도 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면서 상호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친밀감을 더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IV-1]과 같이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즉 가정 내에서는 미디어이용시간에 관한 규칙을 가족구성원이 함께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는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이 강화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미디어교육의 제도화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그림 IV-1】 미디어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

12) 이 내용은 본 과제 평가위원의 심의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은혜, 배상률 (2016).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SNS 이용행태 및 부모중재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권 6호, 451-472.
- 관계부처합동 (2017).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2018 ~ 2022).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반야 (2015). 부모 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 *커뮤니케이션이론*, 11권 4호, 108-170.
- 김서현, 김정규 (2016).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인터넷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5(1), 265-281.
-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은미, 정화음 (2006).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권 2호, 125-161.
- 김종길, 박수호 (2010). 디지털시대의 “가족혁명”- 신화인가 현실인가. *사회이론*, 38, 143-177.
- 김형지, 정세훈 (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중재, 학교교육 및 심리적 반발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권 1호, 87-120.
- 김효성, 서미아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7(3), 101-111.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2017).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 자료집.
- 박소라 (2005). 어린이의 인터넷이용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4호, 166-190.
- 배상률 (2014).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배진아, 조연하 (2010). 디지털미디어와 가족커뮤니케이션: 모자간 소통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7권 1호, 53-91.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2016). ‘서울교육중단연구 6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 안정임, 김지혜 (2013). 가족커뮤니케이션유형 및 온라인친구관계특성이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권 11호, 23-53.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미디어리터러시 구성요인과 부모의 중재행위, 아동의 이용조절인식간의 상관관계. **언론과학연구**, 13권 2호, 161-192.
- 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회 (2013).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이용문화조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오현희, 김현진 (2014).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5(4), 35-57.
- 이경상, 안선영(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숙정, 전소현 (2010). 인터넷중독에 대한 부모중재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289-322.
- 이현정, 김세경, 천성문 (2016). 부모자녀관계변인과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3집 2호, 329-348.
- 이창호, 김정희 (2013).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창호, 신나민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창호, 윤철경, 최금해, 김옥태 (2014).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창호, 이숙정 (2016). 부모의 중재유형과 부모애착이 청소년들의 성인용 앱이용에 미치는 영향. **언론학연구**, 20권 2호, 5-30.
- 임소혜, 조연하 (2011). 부모와 또래집단의 게임이용중재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권 4호, 173-218.
- 정귀임, 김장희(2016). 중학생의 부·모 애착 및 또래애착과 스마트폰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 감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3(3), 599-61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STAT REPORT (2016).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결과 주요 내용.
- 조윤경 (2010).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이용, 그리고 가족커뮤니케이션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210-231.
- 최선우, 김승현 (2015).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65-383.
- 한국리서치 (2017).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조사결과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5년 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6년 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
-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5권 2호, 277-313.
- MBN뉴스 (2017.5.10). “부모 스마트폰중독이 자녀 문제행동 유발.”
(<http://mbn.mk.co.kr/pages/news/> 2017년 6월 28일 인출)
- Kalmus, V., Blinka, L., & Olafsson, K. (2015). Does It Matter What Mama Says: Evaluating the Role of Parental Mediation in European Adolescents' Excessive Internet Use. *Children & Society*, 29, 122-133. Doi: 10.1111/chso.12020
- Lee, S. (2012). Parental restrictive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Effective for what and for whom? *New Media & Society*, 15(4), 466-481. Doi: 10.1177/1461444812452412
- Lemola, S., Perkinson-Gloor, N., Brand, S., Dewald-Kaufmann, J. F., & Grob, A. (2015). Adolescents' electronic media use at night,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smartphone 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 405-418.
- Livingstone, S., & Helsper, E. (2008). Parental mediation and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2(4), 581-599.
- Mesch, G. S. (2009). Parental mediation, online activities, and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12(4), 387-393.
- Nikken, P., & Jansz, J. (2014). Developing scales to measure parental mediation of

young children's Internet use.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9(2), 250-266.
Doi: 10.1080/17439884.2013.782308

Sekarasih, L. (2016). Restricting, Distracting, and Reasoning: Parental Mediation of Young Children's Use of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in Indonesia. In S.S.Lin (Ed.), *Mobile Communication and the Family: Asian Experiences in Technology Domestication* (pp. 129-146). Springer.

Sonck, N., Nikken, P., & Haan, J. (2013). Determinants of Internet Mediation: A comparison of the reports by Dutch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7(1), 96-113.

Vieira, E. T. Jr. (2015).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Sympathy, Perspective-Taking, and Girls' Thoughts About Interperson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30, 607-619.

.....

부 록

부 록

부록 1.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 ① 초등학교 5학년 ② 초등학교 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3. 학생은 평소에 부모님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눕니까?

- ① 자주 ② 가끔 ③ 거의 하지 않음 ④ 전혀 이야기하지 않음

4. 학생은 평소에 부모와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세 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 ()

- ① 공부
② 학교생활
③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뉴스
④ 취미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⑤ 자신의 장래
⑥ 친구 ⑦ 용모와 패션 ⑧ 금전관계 ⑨ 기타 ()

5.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1) 부모님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나와 이야기한다	1	2	3
(2)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항상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고 한다	1	2	3
(3)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	1	2	3
(4)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각자의 핸드폰을 사용한다	1	2	3
(5) 공부를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게임 등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	1	2	3

6. 학생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 ① 대단히 좋아한다
- ② 좋아하는 편이다
- ③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④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61. (문 6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해주세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 ()

- ① 나에 대해 알아주지 않아서 ② 할 얘기가 없어서
③ 부모님의 이야기가 따분해서 ④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없어
⑤ 자주 꾸지람을 들어서 ⑥ 공부에 관한 이야기만 해서
⑦ 부모님은 항상 자기주장만 해서 ⑧ 다른 의견을 들으려하지 않아서
⑨ 부모님의 요구가 많아서 ⑩ 부모님의 생각이 구식이어서
⑪ 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서 ⑫ 기타 ()

7. 학생은 가족들과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행동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1) 함께 TV시청하기	1	2	3
(2) 함께 인터넷하기	1	2	3
(3) 함께 운동하기	1	2	3
(4) 함께 쇼핑하거나 여행하기	1	2	3
(5) 함께 책읽기	1	2	3
(6) 함께 집안일 하기	1	2	3
(7) 함께 생일 축하하기	1	2	3

8. 최근 6개월 동안 학생은 부모님과 다음과 같은 문제로 갈등이 있었나요?

해당사항은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공부에 대하여 (숙제와 성적 등)
- ② 집안일에 대해 (방청소, 정리정돈, 집안일돕기 등)
- ③ 친구들 사귀에 대해
- ④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
- ⑤ 생활습관(잠자기, 식사습관, 공부시간, TV 시청시간 등)에 대하여
- ⑥ 패션에 대하여
- ⑦ 가족관계에 대하여
- ⑧ 사생활에 대하여 (마음대로 핸드폰을 보는 것 등)
- ⑨ 인터넷사용에 대하여 (이용시간이나 내용에 대하여)
- ⑩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생각이나 관점 차이에 대해
- ⑪ 자신의 장래에 관해 ⑫ 기타 () ⑬ 특별히 없었다

9. 다음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부모(보호자)는 나에게 대하여 이해를 해준다	1	2	3	4
(2) 부모(보호자)는 나의 고민에 대하여 들어준다	1	2	3	4
(3) 부모(보호자)는 나를 가끔 꾸짖는다	1	2	3	4
(4) 부모(보호자)는 나를 가끔 칭찬한다	1	2	3	4
(5)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1	2	3	4
(6) 부모(보호자)는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1	2	3	4
(7)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부모(보호자)와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1	2	3	4
(8) 부모(보호자)는 가족끼리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의 의견을 묻는다	1	2	3	4
(9) 나는 부모(보호자)와 특별한 주제 없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1	2	3	4
(10) 부모(보호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1	2	3	4

10. 학생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까? 귀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대단히 즐겁다 ② 즐겁다 ③ 별로 즐겁지 않다 ④ 전혀 즐겁지 않다

11. 가족에 관하여 학생은 어떤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1	2	3	4
(2) 가족은 가능한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행동을 같이 한다	1	2	3	4
(3) 부모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를 갖고 싶다	1	2	3	4
(4)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1	2	3	4
(5) 부모님이 말하는 것은 따라야 한다	1	2	3	4

12. 학생은 자기집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매우 풍요롭다
② 비교적 풍요롭다
③ 중간이다
④ 비교적 힘든 편이다
⑤ 매우 힘들다

13. 학생은 다음 기기를 갖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다 체크해 주세요.

- ① 피쳐폰
② 스마트폰
③ 태블릿 PC
④ PC (컴퓨터)
⑤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14. 학생은 인터넷(카톡,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다 포함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네 → 15번 질문으로 가세요

② 아니요 → (문 15번 ~ 23번 까지는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24번 질문으로 가세요)

15. 학생이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_____살정도때

16. 학생은 주중에 인터넷을 하루평균 얼마나 사용합니까?

① 4시간 이상 ② 3시간~4시간 미만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1시간~2시간 미만

⑤ 1시간 미만 ⑥ 사용 안 한다

17. 학생은 주말에 인터넷을 하루평균 얼마나 사용합니까?

① 15시간 이상 ② 10시간~15시간 미만

③ 5시간~10시간 미만 ④ 3시간~5시간 미만

⑤ 2시간~3시간 미만 ⑥ 1시간~2시간 미만

⑦ 1시간 미만 ⑧ 사용안한다

18. 부모님(보호자)은 학생이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②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모른다고 생각한다

19. 학생은 인터넷의 위험성과 사용중의 태도 등에 관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있습니까?

① 자주 주의를 받고 있다

② 가끔 주의를 받고 있다

③ 거의 주의를 받고 있지 않다

20. 가정에서는 내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아래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해놓고 지키고 있다	정해놓았으 나 지키지 않고 있다	정해놓지 않고 있다
1) 사용시간에 관한 규칙 (예) 하루에 한시간 정도 사용하기 등	①	②	③
1-1)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규칙은 어떻게 정했나요?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①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함 ② 부모님과 내가 서로 논의하여 합의하에 정함			
2) 사용내용에 대한 규칙 (예) 연령대에 맞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기 등	①	②	③
2-1)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규칙은 어떻게 정했나요?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①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함 ② 부모님과 내가 서로 논의하여 합의하에 정함			
3) 사용방법과 매너에 관한 규칙 (예) 공부와 식사중에는 사용하지 않기 등	①	②	③
3-1)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규칙은 어떻게 정했나요?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①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함 ② 부모님과 내가 서로 논의하여 합의하에 정함			
4) 사용요금의 제한에 관한 규칙 (예) 게임이나 쇼핑 등의 내용	①	②	③
4-1)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규칙은 어떻게 정했나요?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①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함 ② 부모님과 내가 서로 논의하여 합의하에 정함			

21. 학생은 카톡, 라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부모님(보호자)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① 자주하는 편이다 ② 가끔한다 ③ 거의 하지 않는다 ④ 전혀 하지 않는다

22. 학생은 자신이 SNS에 올린 게시물(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부모님과 공유합니까?

① 공유한다 ② 공유하지 않는다 ③ SNS에 게시물을 올린적이 없다

22-1. 학생은 타인이 SNS에 올린 게시물(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부모님과 공유합니까?

① 공유한다 ② 공유하지 않는다

23.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귀하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부모님과 직접대화를 하는 것보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SNS를 통해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2) SNS 이용으로 부모님과 대화의 양이 늘었다	1	2	3	4
(3) 부모님과 새로운 어플이나 SNS 사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4) 부모님과 SNS나 전화 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가족들과 식사하거나 단란한 시간 때에도 나는 자주 핸드폰을 사용한다	1	2	3	4
(6) 나는 인터넷에 빠져서 잠이 부족할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7) 나는 게임이나 스마트폰 어플 때문에 돈을 많이 쓴 적이 있다	1	2	3	4

24.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다음문항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1	2	3	4
(2) 스마트폰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1	2	3	4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1	2	3	4
(5) 스마트폰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1	2	3	4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1	2	3	4
(7) 스마트폰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적이 있다	1	2	3	4
(8) 스마트폰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1	2	3	4
(9) 스마트폰이용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4
(10)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1	2	3	4

연구보고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 · 중 · 일 비교
: 한국사례 분석**

인 쇄 2017년 11월 30일

발 행 2017년 11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